

브랜드에 대한 걱이지 않는 마음으로

압구정 차안박피부과
정하정 총괄 과장



병원에서 20년 넘게 일하면서 언제나 차안박피부과는 마음에 두고 있었다. 조금 돌아 왔지만 2년 전 압구정 차안박피부과에 입사하게 되면서 내 집에 돌아온 것처럼 편안하고, 매일 매일이 즐겁다. ‘압구정 차안박피부과 다녀요!’ 요즘 그는 주변 사람에게 자꾸 이야기한다고. 무엇보다 차안박피부과도 27년간 변함없이 오직 피부만을 고민하며 메디컬 스킨케어를 실천하는 명실상부 피부과 대표 브랜드로 자리하고 있었다. 이 브랜드 가치와 자부심을 내원하는 환자나 함께 일하는 임직원 모두가 품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차안박피부과 아카데미를 꿈꾸고 있다. “우선 압구정 차안박피부과에서 시작하고 있어요.”라며 걱이지 않는 확신의 미소를 건넨다. 압구정 차안박피부과 정하정 총괄 과장의 이야기다.

공간의 힘을 믿는 차안박쟁이

“공간이 주는 힘이 있어요. 병원 근무를 하면서 대부분 여성들과 일해 왔잖아요. 위생은 기본, 병원이라는 공간이 구성원에게 주는 의미가 남다르고 우리가 서 있는 공간의 장악력은 큼니다. 차안박피부과 로고에 맞춘 톤앤매너를 고려해 소품 하나 허투루 배치하지 않았 습니다. 공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그 구성원도 소중해지니까요.” 그가 구성원의 이니셜을 암호명으로 부여하고 병원 인스타그램에 세세한 기록을 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압구정 차안박피부과를 입사하고 싶은 병원으로 만들겠다 다짐했 어요. 일년 정도 지나니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침은 있었지만

최정예 멤버로 인력 걱정없이 근무하고 있고, 최근 인근 관공서나 취업 준비생들에게 압구정 차안박피부과 취업 선호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매우 뿌듯합니다. 차안박피부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실무 위주의 교육이 주효했다고 봅니다.”

듣고, 적용하고, 실행한다

압구정 차안박피부과의 치료 프로그램은 스토리텔링이 있다. 프리미엄 물광주사에 이어 테라피 3종(실크스킨, 시그니처올인원, 프리미엄올인원) 등 다양한 네이밍을 선보이고 있는 정하정 총괄 과장. 샘솟는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얻을지 궁금했다.

“우선 환자들을 상담하면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요. 지난 연말에



도 쉽지는 않은 일, 끈대는 백지장 하나 차이임을 안다. 일명 현타가 왔을 때 ‘요즘 애들이란?’이라고 혀를 차기 보다는 우리 병원의 구성원으로서 꼭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고(특히 강조), 그들의 권리 또한 이해하고 지키려고 노력한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날씨를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비가 오는 날도 있고, 햇볕이 쨍해 밝은 날도 있다는 딱 이 마음으로 MZ세대를 바라보고 있어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그들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 하죠. 다만 권리가 있으면 주어진 의무도 있다는 걸 확실하게 각인 시키고, 요구합니다.” 공정을 중시하는 세대, 인류 중 가장 스마트한 그들이기에 가능한 소통법이라고 믿고 있다. 무엇보다 그녀가 주목하는 건 우리가 만나게 될 환자들 대부분도 MZ세대라는 것. 직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은 환자를 이해하는 것과 연계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우문현답, 실무 전문가로 기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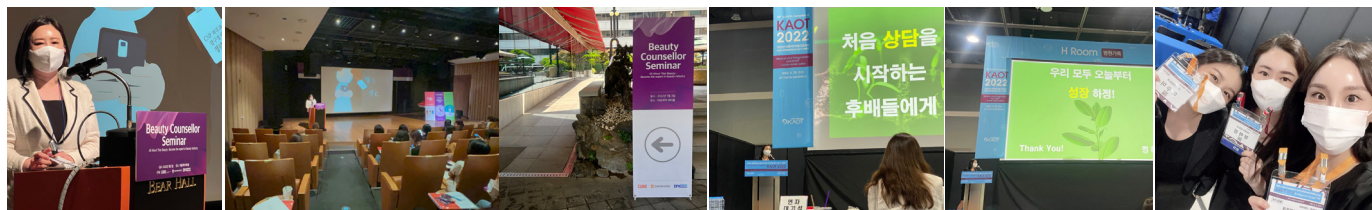
실무 전문가가 되고 싶었던 그는 타 병원의 7명의 실장들과 함께 공저를 냈다. ‘그때 그때 달라요’ 혹은 그저 내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실무가 아니라 기록을 통해 후배들에게 그리고 현직에 있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한다.

“책이 나오기까지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실제로 책을 기획하고, 써내는 데는 4개월이지만 이것을 쓰임이 있는 매뉴얼로 거듭나게 담금질하는 시간이 딱 3배가 더 소요된 것이죠. 20여 년 간의 실무 경험을 정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점에 만족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문현답을 할 수 있는 실무 전문가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기록의 힘을 믿는 그이기에 오늘도 현장에서의 전문가로서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변함없이 브랜드에 대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성공하정!!을 외치는 그다.

런칭한 ‘나에게 주는 힐링 케어’의 경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스스로를 토닥이며, 자신에게 선물하고 싶어 하셨어요. 내원 동기가 명확하니 프로그램도 자연스럽게 네이밍되었답니다.” 물론 주변 병원 모니터링, 시즌을 감안하여 기획하지만 압구정 차앤박피부과를 찾는 환자에게 그만큼의 가치를 드리기 위해 심사숙고한 결과다. 27년 전통의 차앤박피부과라는 브랜드 가치가 실제로 경쟁력이 되는 경험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MZ세대를 ‘인정’하는 스마트한 소통법

직원과의 소통을 누구보다 잘하고 있는 그지만 MZ세대로 대변되는 요즘 직원들은 누구에게나 어렵단다. 매번 공감하려고 하는 것



2022년 Beauty Counsellor Seminar 등 정하정 총괄 과장은 현장 경험을 살린 강의로 명성이 높다. 성공하는 병원 관리자를 위한 실무 강의 진행으로 인기 연자이기도 하다. 집필 활동도 이어갈 생각이다.

with 정혜리 팀장



“좋은 사람, 좋은 병원 함께하니 시너지 배가”

9년 전 20대 초반의 신입 직원과 30대 중후반 실장의 만남. 띠동갑을 한참 넘는 나이 차이지만 딱 보고 알았다고 한다. 관리자의 심미안으로 될성 뉘는 나무 떡잎이었다. 똑같은 교육을 하더라도 한번 더 새기려는 ‘열심’이 눈에 들어 왔고, 3년 만에 직장 동료로서의 인연은 끝이 났지만 지속적으로 안부를 주고 받으며 언젠가 다시 함께 근무하자고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응원했다. 그리고 그 언젠가를 압구정 차앤박피부과에서 실현하고 있다. 좋은 병원에서 좋은 직원으로 약속했던 대로다. 사회에서 스승과 제자로 만났지만 다시 없는 소중한 인연임을 감사하고 있다. 성공하정의 매직!